

## [낙농진흥회]

#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확대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현장

지난 1월 18일, 낙농진흥회에서는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일동제약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담당 공무원 연찬회’와 ‘전국 순회 학교우유급식 특별강의’에 이어 개최된 최종보고회로 농림부 및 낙농관련 단체와 유가공업체 우유급식 관계자, 전문지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식품연구원 학교급식사업단 김은미 박사의 발표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크게 학교급식 중 우유음용의 필요성, 학교우유급식의 실태, 학교우유급식 개선 및 확대방안 등으로 나눠 발표가 이뤄졌다.

학교우유급식 시행학교와 비시행 학교간의 급식식단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우유급식 시행교가 비시행교보다 나은 영양(단백질, 칼슘, 인) 섭취량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 학교우유급식 실태에 대한 보고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급식우유의 조달 및 배송상, 배식 및 위생관리에 문제점, 교사입장에서의 급식 기피사유 등을 지적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학교우유급식 의사결정 구조(의향조사)를 살펴볼때 우유급식과 관련하여 실제 학부모의 의사결정 참여권이 낮은데 학부모가 참여시 우유급식 채택률은 63.9%로 조사되어 우유급식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급식담당교사에 대한 학교우유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지침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우유급식 참여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보완되어야 하며, 학교우유 교육홍보사업의 추진과 학교에 우유급식관련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유통비

용 지원 등 선별적인 보조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급식센터(학교급식법 개정과 병행 실시 예정)를 활용한 우유급식 운영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한 김은미 박사는 개정학교급식법에 의해 시도및시군구 단위로 설립되는 급식지원센터가 학교 대신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 급식우유를 구매·조달해주는 계약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비용이 절감되며, 대리점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가 저해되는 폐해를 전국가격의 일원화로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낙농진흥회 서극수 전무는 “우리나라는 시유시장 아니면 낙농의 미래가 없을 수 없다”며, “학교우유급식 개선이야말로 장기적인 국내시유시장의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 전제하고 낙농단체 및 유업체가 공동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을 움직이자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금번 학교우유급식 관련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올해 교육청,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학교우유급식 표준 메뉴얼’ 제작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